중학 순위 매겨 고교 배정 "공정하지 못했다"

정원 놓고 순서대로 추첨, 뒷순위는 배제

대성여중생은 대성여고에 한명도 못가

같은 학교법인인 대성여고에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대성여중 사태'는 대성여중이 대성여고 배정에서 사실상 배제됐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고교 배정 방식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5일 대성여고에 대성여중 학생이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대성여고 배정에서 같은 법인인 대성여중이 공교롭게도 후순위로 밀리면서 배정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새로 도입한 고교 배정은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작위로 순서를 매겨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순서대로 배정하다보니 인원을 다 채워질 경우 후순위에는 배정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이다.

A고교에 100명을 배정한다고 가정할 때, A고교 배정 가능한 중학교가 15개라면 이들 중학교에 순서(난수)를 매겨 순서대로 10명씩 추첨해 배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100명이 다 채워지면 더 이상 배정하지 않고 B고교로 넘어가게 된다. 1~10번의 중학교는 A고교에 갈 수 있었지만 11~15번의 중학교는 사실상 A고교 배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성여중의 경우, 대성여고 배정에서 순위가 뒤로 밀려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성여중 학생 전체를 대성여고 진학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 됐다.

광주지역 한 중학교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새로 도입한 고교 배정 방식이 컴퓨터에 의한 추첨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정 중학교 학생 전체가 배제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해당 학교의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중학교에 난수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난수도 추첨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공정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후순위 중학교의 전체 학생이 특정고교에 배정받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법조경력 풍부한 변호사 민사사건 전담판사 맡는다

광주지법 양동학씨 법관 임용

양동학 변호사가 광주지방법원에서 민사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5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민사 소액사건을 전담할 신임 법관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양동학(55·16기·사진) 변호사와 함께 심창섭(60·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 우광택(54·16기) 변호사 등 3명을 선임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모두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다.

양 신임 광주지법 민사소액사건 담당판사는 광주일고·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이날 전담법관 임명은 법조일원화 실시에 따른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특정 재판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법관을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배석급 판사(단기 법조경력자), 경력 5년 이상의 단독급 판사, 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등으로 분리해 선발하기로 했다.

전담법관 3명은 5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2주간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은 뒤 25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친환경식재료 품평회 광주시교육청은 5일 오후 교육청 구내식당과 대회의실에서 친환경식재료 학교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친환경식재료 품평회'를 개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법 '리베이트' CJ제일제당 등 3개사 169개 품목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

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료인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 등의 제품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명문제약, CJ제일제당, 한국얀센의 제품 총 169건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 정지 대상은 명문제약 154품목, CJ제일제당 10품목이다. 한국얀센의 5품목도 판매 정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CJ제일제당 임직원의 45억원대 금품 제공 혐의에 앞서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 장준하씨 39년만에 무죄 확정

1974년 '긴급조치 위반' 기소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 선생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간 항소를 하지 않아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법원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재심 첫 공판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가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장 선생에게 3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전남·북 중도입국자녀 예비학교 올해 4곳 신설

전남·북 지역의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예비학교가 크게 늘어난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넓은 지역적 특성에 비해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상태였던 전남·북, 강원 지역에 올해 7곳의 중도입국자녀 예비학교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는 1개에서 2개가 더 생겨나며 전북 지역은 그동안 예비학교가 없었으나 올해 2개가 설치된다.

예비학교에서는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온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 6개월~12개월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작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도입국자녀는 4288명으로 전년대비 2000명 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1000명이 더 늘어 5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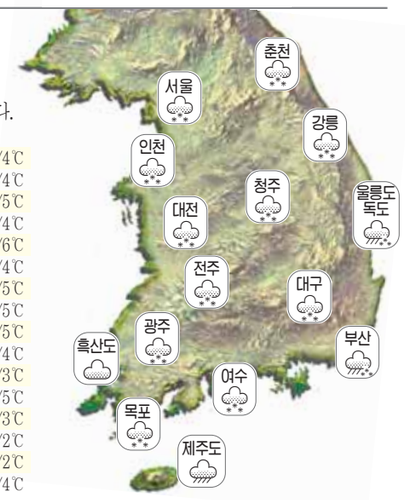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8분 해짐 18시 06분 | 달뜸 03시 30분 달짐 13시 50분

다시 영하권

눈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다.

광 주	흐리고 눈	-1/4℃
목 포	흐리고 눈	0/4℃
여 수	흐리고 눈	3/5℃
나 주	흐리고 눈	-2/4℃
완 도	흐리고 눈	1/6℃
구 례	흐리고 눈	-2/4℃
강 진	흐리고 눈	-1/5℃
해 남	흐리고 눈	0/5℃
장 흥	흐리고 눈	-1/5℃
순 천	흐리고 눈	-2/4℃
영 광	흐리고 눈	-3/3℃
진 도	흐리고 눈	2/5℃
전 주	흐리고 눈	-1/3℃
군 산	흐리고 눈	-2/2℃
남 원	흐리고 눈	-3/2℃
흑산도	흐림	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10:28 22:34	02:53 16:15
여수	06:01 17:58	12:13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날 씨						
최저/최고	-4/-2	-9/0	-6/1	-4/3	-3/4	-3/4

'로또 1등' 당첨자 169명에 물어보니

60% "배우자에게 당첨 사실 숨긴다" 76% "본업 유지" 24% "일 그만둘 것"

로또복권 1등 당첨자의 표준상은 월소득 300만원 미만인 40대 대졸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자의 절반가량은 동물이나 물, 불 꿈을 꿨다.

1등에 당첨된 기혼자는 40%만 배우자에게 당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복권 수탁업체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 161명을 당첨금 수령 현장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등 당첨금은 최저 9억4000만원에서 최고 132억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수령액은 19억7000만원이다. 10명 이상 1등 당첨자가 나온 회차는 488회차(4월 7일) 등 여섯 번이다.

당첨자의 75%는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40대(36%)가 가장 많고 30대(26%), 50대(23%)가 뒤를 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41%로 가장 많았다.

로또복권 구매 동기는 '재미 삼아'라는 이유가 47%로 가장 높았다. '좋은 꿈을 꿔서' 산 사람도 23%에 달했다. 이들은 동물이 나오는 꿈(22%)과 물·불 관련 꿈(22%), 조상 관련 꿈(14%)을 꾼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 가운데 당첨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린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비율도 37%로 높은 편이었다.

당첨금을 받고서 본업을 유지할 것인지에는 76%가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 24%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